



1월

가정공동체

선교는 의무인가, 특권인가?

- 성경 본문** 마태복음 28:16~20
- 요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19절).
-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 이과의 목표** 선교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이 특권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전 세계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해 온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독교 선교사들은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가 처한 환경에 따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도 봉사과 섬김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세워서 일반 국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애쓰고, 병원 건립을 통해서는 의료 서비스 확대와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아프리카 오지, 백인 선교사, 희생과 헌신 등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영화 ‘미션’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부담’입니다.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선교는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과를 통해 선교는 부담이나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II. 생각 넓히기

1. 예수님의 지상 명령
2. 부르심
3. 부름 받은 한 선교사

III. 생각살기

1.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어떤 실제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 많은 경우에 생각의 차이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특권을 살아내는 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와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특권을 사용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받는 권세를 가져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당신의 일상에서 선교를 향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나,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중에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사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도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교회 선교팀에 팀원으로,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자로,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는 재정 기부자로, 혹은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